

## 안동 퇴계구곡

‘인간 퇴계’의 자취  
생생한 시냇가

안동 토계천(土溪川)에 조성한 퇴계구곡은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위대한 철학자 퇴계 이황의 인간적인 체취가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굽이다. 퇴계가 태어나고 자란 고택, 퇴계가 벼슬에서 물러나 살던 집터,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서당, 퇴계의 묘소, 직계 종손이 선조의 뜻을 기리며 살고 있는 종택 등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서나 퇴계의 생생한 흔적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유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이런 사전적인 수식으로 다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철학자다. 전문가들은 퇴계의 사상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경(敬)이라 진단한다. 퇴계의 학문은 경으로 일관돼 있으나 학문의 공간에서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한 평생 이 정신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인물로 꼽힌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와 토계리를 흐르는 토계천(퇴계천, 상계천이라고도 함)에 조성된 퇴계구곡(退溪九曲)은 위대한 철학자인 퇴계의 평범할 수도 있는 이러한 흔적을 좇는 구곡 원림이다. 낙동강 본류를 따라 경영한 도산구곡(陶山九曲)이 대학자 퇴계의 거대한 족적에 대한 탐구라면, 낙동강 지류인 고향의 토계천 물줄기에 설정한 퇴계구곡은 퇴계의 탄생과 성장, 출세, 그리고 귀향과 별세 등 인간 퇴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굽이인 것이다.

퇴계구곡이 조성된 토계천은 낙동강의 아주 작은 지류다. 태백산 지맥인 용두산(龍頭山)과 도산면 태자리에서 근원하여 온혜(溫惠)를 거쳐 흐르는 냇물이 상계(上溪) 마을의 퇴계 종택 앞과 하계의 퇴계 묘소 앞을 지나 낙동강에 흘러드는데, 토계리를 적시는 냇물을 따로 퇴계(退溪)라고도 한다. 원래 냇물의 이름은 토계(兔溪)였으나 이황이 냇가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菴)을 짓고, 냇물의 이름을 퇴계(退溪)로 고친 후 호(號)로 삼았고, 나중에 토(兔)자를 음(音)이 같은 토(土)자로 고쳐 지금의 토계(土溪)라는 이름이 됐다.

퇴계구곡 원림을 읊은 시는 여럿이다. 퇴계 후손인 진성이씨(眞城李氏)로써 가학

을 이은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 1768~1844) 뿐만 아니라, 하암(下庵)李宗휴(李宗休, 1761~1832), 소은(素隱) 류병문(柳炳文, 1776~1826), 동림(東林) 류치호(柳致皞, 1800~1862) 등 여러 유학자들도 퇴계구곡시를 남겼다. 이들의 아홉 굽이는 바뀐 게 없어, 퇴계구곡은 처음에 설정된 아홉 굽이가 이후 변화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하계 이가순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퇴계의 직계 후손이라 하여 정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벼슬에 올라서는 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사헌부장령·응교·교리 등을 역임하면서 시폐(時弊)를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퇴계로부터 이어온 진성이씨 가문의 가학을 지키려는 이가순의 자부심과 노력은 잘 알려져 있다. 하계 이가순의 구곡 시를 따라 가며 퇴계의 그림자를 찾아보자.

자급하는 선가에선 신령에게 비는 노래를 하는데(薪水仙家咏乞靈)  
 청풍명월의 도계 한 구역이 선계처럼 청정하네(兜溪風月一區清)  
 후손들이 백세토록 국과 담장에서 선생을 대하니(雲仍百世羹牆感)  
 멀리 무이산 무이도가에 의탁해서 뱃노래를 부르네(遙寓夷山古櫂聲)

이가순은 서시(序詩)에서 퇴계가 거닐었던 이 굽이를 신령한 곳이라 노래하고 있다.薪水(薪水)는 ‘땀나무와 마실 물’이란 시수(柴水)와 같은 말로서 봉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가(仙家)는 신령스런 집안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퇴계와 자신이 속한 진성이씨 가문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떠오르는 도계(兜溪)는 구곡을 경영한 토계천을 비유한다.

이토록 맑은 구역에 사는 후손이 오랜 세월 항상 언제나 퇴계 선생을 생각하며 학문과 사상을 받드는 것이다. ‘국과 담장’이란 뜻을 지닌 갱장(羹牆)은 ‘추모’, ‘사모’를 의미한다. 즉 셋째 구는 퇴계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윽고 이가순은 오래 전 무이산에 은거하던 주자가 지은 <무이도가>에 의지해 뱃노래를 부르며 퇴계구곡 유람에 나서는데, 퇴계의 기운이 깃든 이 퇴계구곡이 무이구곡만큼 청정한 굽이임을 드러내고 있다.

제1곡 사련진

퇴계의 향기를 좇아 토계천을 거슬러 가네

퇴계구곡의 유람은 토계천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부터 시작해 거슬러 올라간다. 제 1곡은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 사련진(絲練津)이다. 사련진은 토계천이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이다. 진(津)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루터가 있던 지점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토계천 합수지점 부근은 널따란 벌판이 형성돼 있다.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모래와 토계천 모래가 만나면서 쌓여 이뤄진 들판으로 ‘계남들’이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록들에서도 사련진(絲練津), 혹은 비슷한 사진(絲津)이라는 지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주민들의 기억에도 이런 지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김문기 교수는 이가순이 명명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토계천이 계남들을 적시고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모습이 마치 실처럼 가늘다는 의미로 ‘실사(絲)’를 쓴 게 아닌가 여겼다.

일곡이라 사련진곡 저물녘에 뱃사공을 불러다가(一曲絲津喚暮船)  
 시내 따라 산을 끼고 북쪽으로 남천에 들어가네(溪循山北入南川)  
 어느 해나 은어를 잡아 올리는 공물을 면제받나(何年蠲却銀唇貢)  
 그림 속 어촌의 저녁연기는 예전과 다름없는데(依舊漁村畫裏煙)

이가순은 해가 질 무렵 퇴계구곡 유람을 나섰다. 사련진곡의 뱃사공을 불러 토계천 시내를 따라 남천으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토계천은 배를 띄울 수 없을 만큼 작은 하천이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하천 폭이 낮고 좁아 이가순이 퇴계구곡을 경영하던 그 시대에도 토계천은 배를 띄울 수 있는 하천이 아니었다. 이가순은 상상의 배를 타고 거슬러 오른다.

이가순은 셋째 구에서 강마을의 현실 문제를 짚는다. 은어 공물을 언급하며 여느 구곡 시와는 확연히 다른 톤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다. 예전 낙동강 은어는 나라 안에서도 아주 유명했다. 특히 안동 은어는 제법 알아줬고, 이 일대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은어잡이 지역이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주민들은 공물로 바칠 은어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가순은 이 현실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제 삼으면서 언급한 것이다.



퇴계구곡의 제2곡인 양진암 옛터. 퇴계는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양진암 뒤쪽 언덕에 조성돼 있는 퇴계 이항의 묘소. 조선의 대학자임에도 묘소는 매우 소박한 편이다.

제2곡은 양진암

퇴계가 자리 잡은 터전... 퇴계의 만년유택도 있어

함수지점인 사련진에서 900m 정도 물길을 오르면 하계 마을이다. 하계는 우리말로 ‘아랫토계’, ‘아랫토끼’라 부른다. ‘하계마을 독립운동 기적비’가 세워져 있는 하계 삼거리에서 퇴계종택 쪽 50m 지점 오른쪽 바위 위가 양진암(養眞菴)이 있던 자리다. 양진암은 토계천 물줄기와는 100여m 정도 떨어진 산자락에 있다. 그럼에도 이곳을 둘째 굽이로 정한 까닭은 퇴계와 인연이 아주 깊기 때문이다. 퇴계는 46세가 되던 1546년 11월 벼슬에서 물러나 이곳 동암(東巖)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며 양진암(養眞菴)이라 했다.

퇴계는 건지산을 등지고, 눈앞으로는 토계천이 보여주는 차분한 분위기의 양진암에 머물며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다. 현재 양진암은 없어진 지 오래. 그 터에는 ‘양진암고지’라 새겨진 작은 비석만이 대학자가 기거하던 소박한 암자임을 알려준다. 후손 이가순이 퇴계구곡을 경영하던 시절에도 양진암은 이미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었던 가보다.

이곡이라 산간의 문 양쪽 봉우리와 마주하였는데(二曲山門對兩峯)  
 노을 드린 연꽃 같은 봉우리 봄날 자태 아름답네(霞蒸蓮秀媚春容)  
 만 권의 서적에 묻혀 살기에 참으로 좋은 곳인데(生涯萬卷眞休地)  
 서쪽으로 도산과 가까워 단지 산 하나 너머라네(西近陶山只一重)

이가순은 양진암 터에서 앞을 바라보며 퇴계가 기거하던 당시의 모습을 떠올렸다. 앞으로는 하계 들판이 펼쳐져 있고, 양쪽에 연꽃 같은 산봉우리가 솟아 아늑하게 감싸주었다. 마침 봄날의 노을이 드리워진 풍경은 아름다웠다. 이가순은 퇴계를 떠올린다. 퇴계가 생전에 맘에 들어 했듯이 차분하게 묻혀 독서에 몰두하기 참 좋은 곳이었다. 그 뿐이 아니라 서쪽으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도산서원이 있으니 후손 이가순은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겨났다.

양진암 언덕 위 150m 지점에는 퇴계 묘소가 위치한다. 퇴계를 뵈기 위해 계단길을 50m 정도 오르면 퇴계의 만며느리 금씨 부인(琴氏夫人)의 묘소가 먼저 반긴다. 퇴계의 묘소는 100m 더 올라야 한다. 보통 부모의 묘소 아래에는 만아들이 자리를 잡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큰 아들 이준(李儼, 1523~1583)의 묘는 죽동에 있는데 어찌 며느리가 여기에 묻혀 있는 걸까.

만아들과 봉화 금씨 처자와의 혼사에는 ‘인간 퇴계’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전해온다. 당시 봉화금씨는 재산으로나 학문으로나 제법 뽐뽐거리는 토호 양반 가문이었다. 물론 퇴계도 문과에 급제해 예문관검열을 지냈고, 학문과 인격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봉화금씨 집안에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만며느리를 맞아올 때 퇴계는 상객(上

客)으로 사돈댁에 갔다. 그렇지만 금씨 문중에게 냉대를 당하고 만다. 혼사를 마땅치 않게 여긴 금씨 문중 노인들은 얼씬하지 않았고 오직 혼주만이 그를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퇴계가 떠나자 금씨 문중 노인들은 퇴계가 앉았던 마루를 물로 씻어내고 대패로 밀기까지 했다. 이를 전해들은 퇴계 문중에서도 결국 난리가 났다. 그러나 퇴계는 문중 사람들을 타일렀다.

“예로써 행동하라. 그런 일로 말썽을 일으키면 새 며느리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이리하여 퇴계 문중에서는 사돈댁의 모욕을 불문에 부쳤고, 퇴계는 며느리를 아꼈다. 시아버지의 인품에 감화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셨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뒤 금씨는 임종을 앞두고 “내 생전에는 시아버님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많았으니 죽어서라도 가까이서 모실 수 있게 시아버님 묘소 아래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퇴계의 묘소는 대학자의 그것과 달리 소박하다. 퇴계는 임종을 앞둔 1570년 자신의 장례를 조출하게 지낼 것을 유언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조정에서 예장(禮葬, 지금의 국장)을 내릴 것인데 이를 사양하라. 비석을 세우지 말고 작은 돌의 앞면에 미리 지어둔 명(銘)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만 새기라.” 비석 뒷면에는 퇴계의 자명문(自銘文)과 고통 기대승이 지은 묘갈문(墓碣文)이 새겨져 있다.



퇴계구곡의 제3곡인 죽동. 퇴계가 잠시 기거한 적이 있던 인연이 있다.

### 제3곡 죽동

#### 봉황 잠시 머물던 자그마한 골짜기

양진암에서 도로를 따라 950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오른쪽으로 작은 계곡을 만나는데, 그곳이 제3곡인 죽동(竹洞)이다. 우리말 지명으로는 ‘대골’인 이 굽이에서 퇴계는 잠시 기거했던 인연이 있다. 퇴계는 비록 죽동에 오래 머물진 않았어도 이런 사연이 있었으니 퇴계구곡의 한 굽이를 차지할 수 있었다. 현재도 죽동은 몇 가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작은 계류가 흐르기는 하지만 수량은 아주 적은 편이다.

삼곡이라 떠돌로 지은 집 작기가 조각배만 한데(三曲茅齋小似船)  
여러 해 동안 비바람 막기에는 감당할 수 없네(不堪風雨庇多年)  
텅 빈 산 봉황은 떠나고 대나무는 열매도 없는데(山空鳳去篁無實)  
천 길 기이한 바위에 맡겨 보호하니 가련하구나(石丈千尋任護憐)

이가순은 토계천을 거슬러 죽동에 도착했다. 토계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에는 조각배처럼 작은 텃집이 있었다. 비바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퇴락한 집이었다. 그 집을 보고 이가순은 퇴계가 이곳에 잠시 살던 시절을 떠올렸다. 대나무가 많은 죽동이라지만 대나무 열매



퇴계의 비석 앞면에 새긴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는 퇴계가 미리 지어둔 것이다.



퇴계 이황의 만며느리인 봉황금씨 묘소. '죽어서도 시아버님을 모시겠다'는 유언을 남겨 현재 퇴계 묘소 아래에 모셨다.

는 없었다. 그러니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봉황이 떠난 게 아니겠는가. 봉황은 퇴계를 말한다. 잠시 여기에 살던 퇴계가 떠났으니 온 산하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제4곡 장명퇴**

순임금 음악 같은 여울 물소리

죽동에서 물줄기를 따라 150m 정도 올라가면 물길이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휘도는 지점에 바위 벼랑이 보이고 그 아래 작은 보가 설치된 물굽이에 이른다. 길 오른쪽은 수십 그루의 아름드리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토계마을 쉼터’다. 그곳의 마을 성황당이 아담하고, 성황당과 붙어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에는 금줄이 둘러쳐져 있다. 이 굽이가 바로 제4곡 장명퇴(鏘鳴瀨)다.

퇴계가 머물던 한서암과 제자를 가르치던 계상서당, 퇴계종택 등을 지나온 시냇물은 맑다. 보가 생기고 도로 축대를 쌓으면서 옛 모습이 바뀌었지만, 당시의 여울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퇴계도 <장명퇴>를 읊었다. “물과 돌이 서로 부딪쳐(水石兩相值) / 옥 같은 소리 순임금

음악 같네(鏘然如舜樂) / 이따금 백록사를 읊으나(間詠白鹿辭) / 그 분은 나와는 멀기만 하네(斯人去我邈)”

퇴계는 물이 돌에 부딪쳐 나는 장명퇴 여울 소리를 순임금 음악에 비유했다. 공자는 음악 이론과 실기에 모두 뛰어난 음악 마니아였는데, 순임금이 만들었다는 소(韶)를 듣고 아름다운 음률에 매혹돼 세 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소(韶)는 순임금의 음악을, 무(武)는 주나라 무왕의 음악을 의미한다. 퇴계 역시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다.

퇴계는 주자를 떠올리며 그가 불렀던 <백록동부(白鹿洞賦)>를 읊어보지만 주자는 시공간으로 너무 멀리 있다고 아쉬워한다. 이는 퇴계가 주자를 연모하며 학문 연마에 힘을 쓰지만, 퇴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득하다고 한탄한 것이다. 겸양의 자세로 학문에 몰두하면서 이 여울에서 귀 기울여 물소리 들던 퇴계의 모습이 떠오른다. 후손 이가순도 이 굽이에서 음악 소리를 들었다.

사곡이라 꽃이 피어 있는 데 그 밑은 절벽의 바위(四曲花臺臺下巖)  
물고기는 시내서 놀고 새는 구름 속으로 날아가네(魚川游泳鳥雲麩)  
맑은 소리 누가 울리는지 훈현곡이 귀에 들려서(鏘鳴誰瀉薰絃入)  
석담에 가득한 보기 드문 소리를 한가로이 듣노라(閑聽希音滿石潭)

바위 벼랑에 철쭉이나 진달래가 피어 있었던가 보다. 그 꽃 핀 대 아래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있는 물굽이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는 새가 구름 속으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진리를 배우는 굽이인데, 그곳에는 하나 더 선물이 있었다. 바위가 꽤여 빛어진 못으로 쏟아지는 물소리는 마치 현악기 연주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훈현곡(薰絃曲)은 임금의 시문(詩文)을 비유한다.

**제5곡 고등암**

제자 가르치던 계상서당이 여기에 있네

음악 같은 장명퇴 여울 물소리를 뒤로 하면 상계(上溪) 마을에 닿는다. 이 마을은 토계 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말로 ‘웃토계’, 혹은 ‘웃토끼’라고 한다. 퇴계구곡의 제 5곡인 고등암(古藤巖)은 상계1교 상류의 50m 정도 지점의 바위벼랑으로 추정된다. 이 주변은 퇴계가 터를 잡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내던 마지막 터전이다. 시내 오른쪽은 한서암, 계재, 계상서당이 사이좋게 모여 있는데, 왼쪽의 퇴계종택(退溪宗宅, 경상북도기념물 제42호)이 먼저



퇴계구곡의 제4곡인 장명퇴. 퇴계는 이 여울물 소리를 순임금 음악 같다고 노래했다.



퇴계구곡의 제5곡인 고등암. 왼쪽의 아름드리나무가 한서암과 계상서당 등을 가리고 있다.



퇴계 중손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퇴계종택은 대종가로서의 품격을 보이는 건축물로 평가 받는다.

옷깃을 잡는다.

현재 퇴계종택에는 퇴계의 직계 중손이 살고 있다. 퇴계선생구택(退溪先生舊宅)이라는 현판이 있는 집 우측에는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이라는 정자가 있고, 추월한수정 뒤쪽에 제실이 있어 퇴계선생 위패를 모셔둔다. 조선시대의 옛 종택은 1907년 일본군이 불태웠다. 지금의 가옥은 퇴계의 13세손인 하정공(霞汀公) 이충호(李忠鎬)가 1929년 옛 종택의 규모에 따라

새로 지은 것이다. 비록 근대에 지어졌지만, 의젓한 품위와 규모를 갖춘 대종가로서의 품격을 보이는 건축물로 평가 받는다. 종택 뒤쪽 숲속에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자리한다.

퇴계종택을 뒤로 하고 다시 큰길로 나오면 시내 건너편에 2011년 복원한 한서암(寒棲庵), 계상서당(溪上書堂), 계재(溪齋)가 보인다. 퇴계는 토계천 건너에 터를 마련해 한서암(寒棲庵)을 짓고 집 이름을 정습(靜習)이라 하고 학문에 몰두했다. 사실 퇴계는 50세가 되도록 자신의 집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했다. 처음에는 자하봉 아래에 마련했으나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죽동으로 옮겼고, 이곳은 시내가 없고 터가 좁아 오래 있지 못했다. 그리고 양진암을 거쳐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한서암이다. 한서암은 퇴계가 여러 번의 거처를 옮긴 끝에 자리한 터전인데, 퇴계다운 모습을 지닌 거처라는 평을 받는다.

한서(寒棲)란 ‘속세를 떠나 산중에서 가난하게 은거한다.’는 뜻. 주자의 무이정사(武夷精舍)에서 있는 한서관(寒棲館)에서 따온 말이다. 퇴계가 한서암 앞에 판 못인 광영당(光影塘)은 ‘천광운영공배회(天光雲影共徘徊)’에서 뜻을 취해서 지은 이름이다. 퇴계가 한서암으로 거처를 옮긴 후 쓴 시를 보면 한서암에서 자연을 친구로 삼고 학문에 몰두하는 도학자의 경지가 잘 드러난다.

초가집 골짜기 바위사이로 거처 옮기니(茅茨移構澗巖中)  
 때마침 바위에 붉은 꽃 흐드러지게 피었네(正值巖花發亂紅)  
 예부터 지금이나 옮기는 시기 늦었다고 하지만(古往今來時已晚)  
 아침에 밭 갈고 밤에 책 읽고 즐거움이 끝이 없네(朝耕夜讀樂無窮)

한서암에서의 생활은 퇴계에게 많은 정서적 안정을 주었다. 퇴계는 이어 계상서당을 지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1558년 23세의 율곡 이이가 퇴계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찾아와 삼일 간 머물렀다 간 곳도 바로 계상서당이다. 그러다 제자가 점점 늘어나 서당이 좁게 되자 10년 뒤에 산 너머의 낙동강 물가에 새로 터를 마련하고 지은 게 바로 도산서당이다. 이가순은 퇴계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선명한 제5곡에 이르렀다.

오곡이라 푸른 등녕쿨 고목이 깊숙이도 서렸구나(伍曲蒼藤古木深)  
 텅 비고 밝은 집 한 채 시내와 숲에 둘러싸였네(虛明一室擁泉林)  
 창문 앞에는 절로 거문고를 타는 바위가 있으니(窓前自有彈琴石)  
 뉘 알리 용문에서 운자에 맞게 시 짓던 마음을(誰識龍門理韻心)

이가순은 토계천의 고등암(古藤巖)을 보았다. 푸른 등녕쿨이 질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가운데 건물이 퇴계가 머물던 한서암이다. 왼쪽은 계상서당, 오른쪽은 계재.



퇴계구곡의 제6곡인 임부동. 부자였던 임씨가 살았다는 이곳은 평범한 풍경이다.

너머로 시내와 숲에 둘러싸인 밝게 빛나는 집이 있었다. 퇴계가 머물던 한서암이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다. 무이구곡에서 주자의 무이정사가 제5곡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계구곡에서 퇴계가 살던 한서암이 위치한 이 굽이를 제5곡을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서암 창문으로 다가가니 이가순의 눈길에 시내 건너편의 탄금석(彈琴石) 들어왔다. 눈에 있는 평범한 바윗돌이지만, 학문에 끝없이 매진하려는 굳센 의지를 상징한다. 유학에서 '탄금(彈琴)'은 학문을 하다는 뜻과 동의어로도 쓰인다. 용문(龍門)은 과거시험장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고, 퇴계의 집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제6곡 임부동

#### 임씨가 살던 옛터...도산서원으로 가는 길목

제6곡 임부동(林富洞)은 제5곡인 고등암에서 물길을 따라 300~400m 상류 지점의 물굽이와 그 주변을 일컫는 지명이다. 마을에 전하는 말로는 옛날 임씨(林氏) 성을 가진 사람이 만석이나 되는 재물을 가지고 아주 큰 부자로 살던 곳이라 하여 임부골(林富谷), 임보골, 임부동이라 하였다 한다. 예전에는 이 주변에 주민들이 몇 가구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임씨 성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다.

그런데 이곳을 퇴계구곡의 한 굽이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굽이에 걸린 토계교는 퇴계종택, 한서암 등이 있는 토계천 물줄기와 언덕 너머의 도산서원을 잇는 길목이다. 이 다리를 건너 1.4km 가면 도산서원 입구 주차장에 닿는다. 그렇다면 이곳이 그 옛날 도산서원으로 가는 옛 길목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래서 이가순은 이곳 임부동을 여섯 째 굽이로 삼은 게 아닐까? 바위 관문(巖關)이란 말도 그래서 쓴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육곡이라 시내 돌아 다시 만들어진 한 물굽이(六曲溪回更一灣)  
 우는 새와 활짝 핀 꽃이 바위 관문 둘러 있네(鳥鳴花發繞巖關)  
 산속에서 살아가는 삶 봄이 오니 넉넉해지는데(山林日用春來富)  
 천지의 이치가 함께 유행하여 만물이 한가롭네(上下同流物物閑)

이가순은 퇴계의 체취가 남은 한서암을 지나 물굽이를 돌아 여섯 째 굽이인 임부동에 이르렀다. 이가순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바위 관문 주변을 둘러싼 숲에는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새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만물이 한가롭게 천지의 이치를 함께 유행하는 굽이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자연스런 이치가 펼쳐진 이상향이였다.

## 제7곡 양평

## 양 치는 신선이 살던 여울

임부동에서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곧장 1km 정도 오르면 시야가 확 트이는 양평마을에 닿는다. 이곳이 바로 제7곡 양평(羊坪)이다. 남류하는 양평골의 작은 지류가 여기서 토계천에 합류하고, 휘도는 물굽이 주변에는 토계천의 규모에 비해서 제법 널따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양평마을 주민들의 공간 역할을 하던 들판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풍수적으로 양평마을은 산양이 그물을 벗어난 형국의 산양출망형(山羊出網形)이라 하여 양평(羊坪)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또 한자는 다르지만, 항상 양지 바른 언덕이라는 뜻의 양평(良坪·陽坪)이라고도 하는데, 순우리말 지명으로는 '양이두들'이라고 부른다.

이곳 양평마을은 춘당(春塘) 오수영(鳴守盈, 1521~1606)이 살던 마을이다. 춘당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지내면서 퇴계와 함께 외할아버지 이우의 가르침을 받았다. 1555년 진사시에 합격할 때, 당시 고시관이었던 당대의 명필 한석봉(韓石峯)이 답안지의 필획이 강건한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고 전한다. 글씨를 잘 써서 금보(琴輔), 이숙량(李叔樑)과 함께 '선성삼필(宣城三筆)'로 불린다.

칠곡이라 금화산의 양 치는 신선이 살던 여울(七曲金華井口灘)  
우산의 천지에 충만한 기운을 밤에 와서 보네(牛山灑氣夜來看)  
누가 벌거숭이 민둥산에 자주 와 풀을 뜯기는가(誰教濯濯頻從牧)  
겨우 남은 뿌리조차 비와 이슬 적어질까 두렵네(却怕孤根雨露寒)

이가순은 양평에 이르러 '황초평 전설'을 떠올린다. 황초평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목동(牧童). 15세 때 그의 어질고 착한 성정을 알아본 선인(仙人)을 따라가 금화산(金華山) 동굴에서 수도했는데, 40년 만에 속세로 나와 백성들을 액(厄)으로부터 지켜주어 황대선(黃大仙)으로도 불렸다.

둘째 구에서는 '우산지목(牛山之木)' 고사를 끌어들인다. 전국시대 제나라에는 우산(牛山)이라는 산이 있었다. 우산은 원래는 아름다리나무가 많은 울창한 산이었으나, 도시 근교에 위치한 탓에 사람들이 땀감과 재목을 구하기 위해 벌채를 하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목동이 소와 양에게 풀을 먹이니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산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우산이 원래부터 민둥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제후들에게 설파할 때, "우산(牛山)의 나무들은 일찍이 무성하고 아름답



눈이 시원해지는 양평 들판. 양평은 퇴계구곡의 제7곡을 이룬다.

다웠는데, 큰 성곽 도시 근교에 있어서 도끼로 나무를 함부로 베다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라며 인간의 본성을 우산지목에 비유했다. 이가순은 이 고사를 떠올리며 우산에 소와 양을 풀어놓으면 푸른 숲이 무너지고 인간의 본성도 되찾을 수 없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 양평에서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본성을 지키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 제8곡 청음석

## 퇴계의 추억이 담긴 냇가의 바윗돌

양평 마을을 벗어나 1km 정도 오르면 제8곡 청음석(淸吟石)에 닿는다. 청음석은 퇴계의 추억이 서린 바윗돌이다. 토계천 시내에 있는 청음석은 거대하지도 않고 깎아지른 벼랑도 아니요, 기묘한 형상을 한 것도 아닌 냇가의 아주 평범한 바윗돌이다. 우리나라 어느 시내에서



퇴계 이황의 추억이 서린 청음석.  
퇴계구곡의 제8곡을 이룬다.

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바윗돌이 특별한 까닭은 퇴계의 어린 시절 추억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퇴계는 청음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어릴 적 부친을 여윈 퇴계는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李堉, 1419~1517)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송재 이우도 퇴계를 친자식 같이 여겼다. 1512년 12세 때 이우에게서 《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퇴계는 이후 숙부의 지도를 받아 청량산, 봉정사 등에서 공부를 했다. 이우는 성품이 엄격하여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드물었으나 퇴계에게는 집안을 빛낼 아이라고 자주 칭찬하곤 했다. 지금 널리 알려진 ‘퇴계 예던길’도 어린 퇴계가 숙부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청량산까지 다니던 낙동강 강변길이다.

그런 숙부가 강원감사로 발령이 나서 부모를 뵙기 위해 고향에 왔을 때 가족과 함께 토계천 냇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때 숙부는 “계산의 아름다움 얻고자(欲得溪山妙) / 소나무 문을 홀로 배회하네(松門獨自回) / 맑은 읊음 사라지게(淸吟還敗意) / 누가 관리를 보냈단 말인가(誰遣督郵來)”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때의 기억은 소년 퇴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퇴계 나이 17세 때 이우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세월이 흘러 노년에 접어든 퇴계는 아들, 조카들도 함께 이곳을 찾아 숙부에게 가르침을 받던 그때의 추억을 떠올렸다. 숙부 시의 ‘맑은 읊음’이란 청음(淸吟)에서 글자를 따와 추억이 서린 바윗돌을 ‘청음석’이라 했다. 퇴계도 시를 지었다. “어린 시절 모시고 놀던 곳(總角陪游地) / 불러 보아도 오시지 않네(吟魂去不回) / 오직 개울가 바위 소리만

(唯餘溪響石) / 다시 찾아움을 위로 하네(似欲慰重來)” 냇가 왼쪽의 도계정사(兜溪精舍)는 퇴계와 이우의 추억이 서린 곳에 후손들이 세운 정자다. 건물에는 청음헌(淸吟軒)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팔곡이라 산언덕에는 들쭉날쭉한 바위 널렸는데(八曲陂陀亂石開)  
청음대 밑으로는 물굽이가 빙 둘러서 흘러가네(淸吟臺下水彎洄)  
사방의 산에는 두견화가 해마다 붉게 피어나니(四山躑躅年年紫)  
교자 타고 가 돌아오고 싶지 않은 아련한 생각(曠想肩輿去不來)

이가순이 이 굽이에 이르렀다. 시내에는 바윗덩이들이 널려 있었다. 상류에서 흘러온 맑고 깨끗한 시냇물은 그 바윗덩이 중 하나인 청음석을 빙 돌아 적시고 흘러갔다. 퇴계가 숙부를 모시던 때는 화창한 봄이었다. 마침 이가순이 이 굽이를 찾던 때도 산자락에는 두견화가 붉게 피어나는 봄날이었다. 이가순도 청음석에 앉아 아련한 추억에 잠겨들었다.

#### 제9곡 쌍계

#### ‘동방의 주자’ 퇴계가 태어난 마을

제8곡 청음석에서 300m 정도 오르면 35번 국도와 만나는 도산면사무소 삼거리. 왼편의 남쪽은 안동 시내, 오른편의 북쪽은 청량산 방향이다. 오른편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눈앞에 도산면 중심지인 온혜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삼거리에서 500m 상류 지점에서 두 물이 만나는데, 이 굽이가 바로 제9곡 쌍계(雙溪)다.

쌍계는 두 냇물이 만나는 곳이다. 왼쪽은 용두산(661m)에서 발원해 남서류하는 온계(溫溪)요, 오른쪽은 만리산에서 발원해 남류하는 청계(淸溪)다. 이 두 물길은 온혜교 근처에서 합류해 쌍계가 된다. 온계 상류에는 옛날에 온천이 있어서 마을을 이렇게 이름 하였다. 냇물에 손을 담가보면 온계와 청계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정말로 온계는 따뜻하고, 청계는 차갑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조화를 이뤄 토계천이라는 이름을 얻고는 퇴계의 체취가 진하게 남은 토계리를 거쳐 낙동강으로 몸을 섞는 것이다.

온혜리는 퇴계의 고향이다. 노송정(老松亭) 고택은 1454년 퇴계의 조부인 이계양(李繼陽)이 온혜로 옮겨오면서 지은 집으로 퇴계 집안이 대대로 살아왔다. 몸체의 중앙에 돌출된 방은 퇴계 선생이 태어났다 하여 퇴계태실이라 부른다. 태실 남쪽 처마 밑에는 ‘퇴계선생태실(退溪先生胎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복스럽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글씨다.



온계의 청계 두 물줄기 만나는 쌍계는 퇴계구곡의 마지막 굽이다. 퇴계가 태어난 노송정 고택이 마을에 있다.

구곡이라 구름 깎 산 가물가물 보이는데(九曲雲山縹緲然)  
 십리길 쌍계의 물 앞 시내에 쏟아져 내리는데(雙溪十里走前川)  
 선생의 고택엔 푸른 소나무 우뚝우뚝 서 있으니(蒼松古宅亭亭立)  
 도가 보존된 것에 나서 세모에도 변함없어(道域栽培歲暮天)

토계천을 거슬러 올라온 이가순의 눈에는 온혜 들판 너머로 구름에 덮인 산이 가물가물 보였다. 온계, 청계 두 물줄기가 십 리를 흘러내려 왔다. 눈을 들어 쌍계 너머를 보니 온혜 들판 안쪽의 퇴계가 태어난 노송정 고택에는 소나무가 푸름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퇴계의 학문과 도는 세모, 즉 한 해가 끝나가는 추운 세밑에도 변함없이 보존되고 서려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여행 길잡이**

안동의 퇴계구곡(退溪九曲)은 낙동강 지류인 도산면 토계천에 조성된 구곡원림이다. 퇴계구곡의 아홉 굽이는 제1곡은 사련진(絲練津), 제2곡은 양진암(養眞菴), 제3곡은 죽동(竹洞), 제4곡은 장명래(鏘鳴瀨), 제5곡은 고등암(古藤巖), 제6곡은 임부동(林富洞), 제7곡은 양평(羊坪), 제8곡은 청음석(淸吟石), 제9곡은 쌍계(雙溪)로 약 5.5km 구간에 조성되어 있다. 차량으로 답사도 가능하지만, 걸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다.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영주IC → 28번 국도 → 영주 → 5번 국도 → 지곡교차로 → 녹전면 소재지 → 도산면 소재지 → 백운로 → 도산면 토계리 하계마을

**숙식(지역번호 054)**

퇴계구곡의 중심지 토계리의 퇴계종택(856-1074)에서 고택 체험 가능하다. 근처에 열화민박(855-8332)있다. 제9곡의 쌍계가 있는 온혜리에 노송정체험관(856-1052), 온계종택( )에서도 고택 체험이 가능하다. 도산면 소재지에 수원식육식당(857-2738) 등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참조(지역번호 054)**

안동시청 대표전화 840-6114